

'56년 창립 ... 축산과학기술 개척 한국축산학회

1956년 창립한 한국축산학회는 꾸준한 연구활동으로 축산물 생산의 경제적 증대, 고부가가치 생물물질의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92년 법인으로 등록한 축산학회는 '85년 5월 워커히에서 20개국서 1천5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아시아 호주 축산학대회를 열었으며 올해에는 6월28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제8차 세계축산학대회를 개최한다.



金顯郁

〈한국축산학회 회장/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동물자원학과 교수〉

우 유, 고기, 계란은 종합영양식품으로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주요 축산물이다. 식품과 건강,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축산식품의 영양가, 건강 증진 효과와 품질, 안전성, 다양성 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축산은 전통적 개념에서 나아가 한국 농업의 한 부분

으로써 국토의 생산성을 유지·발전시키고, 환경을 보호·발전시키며, 국민의 건강과 영양 및 복지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력을 발전시키는 필수 농산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의 축산과학은 축산물 생산을 경제적으로 증대시키고, 고부가가치 생물물질의 생산에 기여하면서 한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축산식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축산과학기술과 첨단 동물유전공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 중심에 한국축산학회가 있다.

논문 2천4백24편의 학회지 출간

한국축산학회는 1956년 10월 8일에 탄생하였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에 윤상원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으셨고 사무실은 당시 농림부 축정과에 있었으며 축정과장이시던

유윤수과장이 상무이사로서 학회 일을 담당하였다. 학회는 1957년 11월 1일에 계간 「축산」을 창간하였고 1958년 10월 24일에 「축산」 제5호를 학술논문 특집호로 꾸밈으로써 「한국축산학회지」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다. 초창기의 열악한 학문연구 환경에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교수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의하여 학회가 발전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당시 대학 전문교재가 전무한 상태에서 「낙농학」, 「가금학」, 「가금육종학」 등의 외국 교재를 번역하여 대학 교육의 활성화와 한국 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8년 9월 12일에는 고려대학교 대강당에서 '축산진흥책'에 대하여 처음으로 축산문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므로써 학회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학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한국의 축산업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즉, 사료문제, 가축개량 증식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 축산업과 정부 축산정책의 발전을 지원하므로써 오늘의 큰 축산산업을 구축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 해마다 학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행하면서 국내 학자들의 논문의 질과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97년에 「한국축산학회지」 제39권의 출판을 완료하여 총 1만8천2백28쪽, 2천4백24편의 학술논문을 출판하므로써 5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국의 축산학과 축산업의 발전에 큰 발자국을 남기는 학회가 되었다.

우리 학회는 27대의 회장을 모시면서 회장 선출제도를 전 회원 서면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정착시켰으며,

회장 1명과 제1부회장, 제2부회장 각 1명이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고 매년 제2부회장 1명만을 선출하고 있다. 학회의 사무는 총무이사가 관장하고 2명의 직원이 사무를 보좌하고 있으며 현재 5개의 분과위원회(포상위원회,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회지편집위원회, 기술지편집위원회)가 학회의 각종 중요 업무를 논의, 결정하고 있다. 우리 학회는 1992년 6월 2일에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회칙을 새로 제정·공포하므로써 명실상부한 학술법인체로서 법적인 보호와 의무를 가진 축산분야의 유일한 학술단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학회의 의결기관은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기관으로서 약 60명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법인체와 같이 최종 의결기관은 총회이다.

축산학분야 종합학술대회 개최

현재 축산학분야에는 우리 학회 외에 9개의 학회가 분리되어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1978년 6월 17일에 한국낙농학회가 분리된 이후 지속적으로 학회들이 분리되고 있으나 회원들이 대부분 중복되고, 분리된 학회들이 대부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축산업계의 어려움으로 업계의 찬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영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축산학분야 학회와 회원들의 여러 가지 학술 활동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90년 9월 14일에 축산분야의 학회장들이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를 구

성하였으며 이 협의회가 1991년 6월 28~29일에 제주대학교에서 제1회 축산분야종합학술대회를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축산분야의 학회 종합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1997년에 제7회 종합학술대회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다. 종합학술대회에는 약 4백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각종 주제에 대하여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학술연구논문은 약 3백편이 발표되고 산업전시회도 개최되고 있다. 협의회는 매년 심포지엄과 발표논문의 초록을 분야별로 게재한 프로시딩스를 발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세계학술대회 서울 유치

한국축산학회는 Asian-Australi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n Societies(AAAP)의 이사학회로서 1985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워커히호텔에서 제3차 아시아호주축산학대회를 개최하여 20여개국에서 약 1천5백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학술논문 1천여편이 발표되었으며 8개 분야의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 바 있다. 또 우리 학회는 세계축산학회(The World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n Societies)의 회장학회로서 1998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제8차 세계축산학대회를 개최기로 되어 있으며 약 2천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학술발표와 학술심포지엄, 축산학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4년간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학회는 매년 총회에서 우

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연구업적이 우수한 분에 대한 학술상과 학회발전 또는 축산분야에 공적이 있는 분을 포상위원회가 선발 추천하여 학회공적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학술상은 28명에게, 공적상은 18명에게 수여되었다.

세계 유명한 초록잡지의 대부분(Biological Abstracts, Chemical Abstracts, CAB Abstract Journals,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s,)이 한국축산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의 초록을 게재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의 데이터베이스인 AGRICOLA에 등재되고 있다. 우리 학회는 학회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논문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논문의 출판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회지의 국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 학회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ALRIC, 한국과학재단 지원)의 IP학회로서 센터의 WWW에 홈페이지(<http://aginfo.snu.ac.kr/animal/>)를 개설하고 있으며 학회의 소식과 회원관리, 학회 논문 관리 등 모든 업무를 WWW을 통하여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국축산학회는 올해의 운영방향을 △몽쳐서 발전하는 학회로, △자립하고 선도하는 학회로, △경쟁력있는 학회로 거듭나서 발전하기로 정하고 경쟁력있는 학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한국축산학회는 한국의 전체 축산계에 모범을 보이고 축산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에 서서 축산과학기술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⑤7